



2022.6.13.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47호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2. 6. 13.

Vol. 47

ISSN 2733-8258

발행일 2022년 6월 13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이채정

요약

I. 분석개요

II.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1. 정신건강(우울)

2. 신체건강

3. 실업

III. 시사점

참고문헌

■ 생애주기별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정신건강, 신체건강, 실업)을 유형화하고, 기존 불평등 요인(화폐적 빈곤, 물질적 곤궁)에 따라 위험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 제1~15차 한국복지패널(2006~2020년) 자료에 일반선형회귀모형(generalized linear mixed effect model)과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를 적용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 경험 확률의 추이를 관찰하고, 연령과 집단별로 각 위험을 경험하는 확률이 어떻게 다른가를 추정

■ 빈곤은 다양한 생애주기별 위험과 결부되어 있으며, 직접적 빈곤 경험을 의미하는 물질적 곤궁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부터 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과 관련

- 정신건강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며, 물질적 곤궁은 노년층에게 거의 절반 가까운 비율로 높은 수준의 우울감 유발
 -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금급여 지원을 통한 소득 빈곤 완화만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물질적 곤궁 해소가 빈곤문제 완화에 있어 중요
-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신체건강이 좋지 않으며,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 건강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
-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실업 수준이 높으며,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집단은 전 연령대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실업 수준이 높음
 - 실업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빈곤 수준이 심화하고 있어, 근로소득의 감소를 완화해줄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 시사

■ 빈곤 경험이 촉발하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위기는 연쇄적·중첩적이므로,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관점과 빈곤 경험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세분된 정책설계 필요

I. 분석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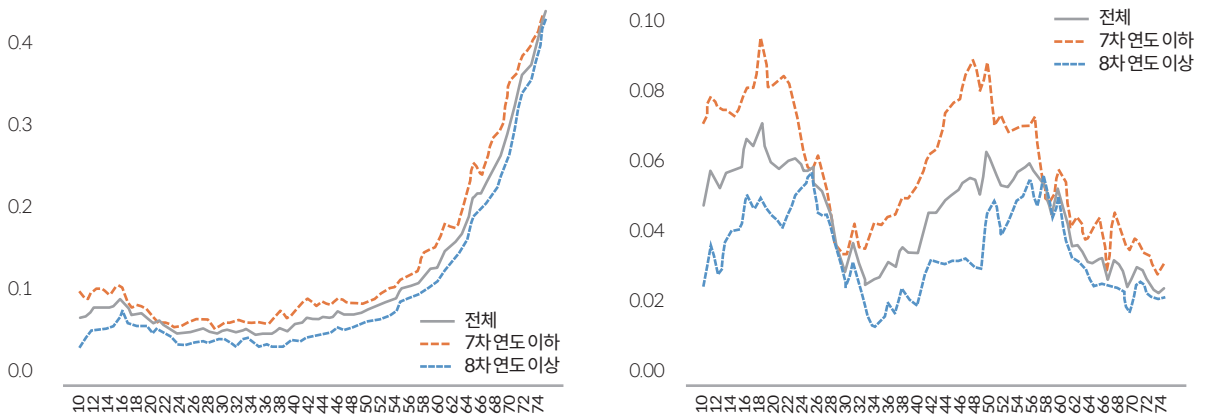
- 생애주기별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정신건강, 신체건강, 실업)을 유형화하고, 기존 불평등 요인(화폐적 빈곤, 물질적 곤궁)에 따라 위험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 제1~15차(2006~2020년)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일반선형회귀모형(generalized linear mixed effect model)과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 AME)를 적용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 경험 확률의 추이를 관찰하고, 연령과 집단별로 각 위험을 경험하는 확률이 어떻게 다른가 추정
 - 종단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을 무작위효과로, 연령과 집단 구분을 고정효과로 동시에 고려하는 일반선형회귀모형으로 사회적 위험 경험 확률을 추정하고, 연령과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 모형의 계수를 평균한계효과(AME)로 산출
 - 본 분석에서 다루는 사회적 위험에 해당하는 정신건강, 신체건강, 실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
 - 정신건강은 우울감을 측정하는 5점 척도로 구성된 11개 문항을 합산하여 활용하였으며, 우울감 총점이 상위 20%에 속하는 경우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정의
 - 신체건강은 건강상태에 대한 5점 척도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에 대해 “매우 좋지 않다”와 “좋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정의
 - 실업은 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지난 1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정의	측정
빈곤	물질적 곤궁 (빈곤 경험 여부)	적절한 식사 못한 경험 의료서비스 받지 못한 경험 자녀의 의무 교육 지원하지 못한 경험 공과금을 내지 못한 경험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험 (하나라도 경험했을 경우 물질적 곤궁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
	화폐적 빈곤	가구 소속원 소득이 연도별 가구표준화 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 (1수준) 50% 미만 (2수준) 50% 이상 중위값 미만 (3수준) 중위값 이상 중위값 150% 미만 (4수준) 중위값 150% 이상
정신건강	우울감	우울감 5점 척도 11개 문항 응답 결과 총점이 상위 20%에 속하는 경우
신체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나쁨)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5점 척도 문항에 “매우 좋지 않다”와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실업	실업 경험	지난 1년간 주요 노동시장 참여 상황이 실업 상태에 속하는 경우

- 불평등 요인에 해당하는 빈곤은 화폐적 빈곤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빈곤 경험을 다루는 물질적 곤궁(material hardship)을 함께 검토
 - 한국과 같이 현물이나 서비스 등을 통한 사적 이전이 가족 간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 소득 수준으로 측정된 빈곤 여부가 정확한 빈곤 상황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
 - 돈이 없어 적절한 식사를 못 하거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험, 자녀의 의무 교육을 지원하지 못했거나, 공과금을 내지 못한 경험,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험 가운데 하나라도 경험했을 경우 물질적 곤궁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
 - 화폐적 빈곤은 연도별 가구표준화 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속원을 화폐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
- 빈곤을 별도의 사회적 위험으로 분석하지 않고, 정신건강, 신체건강,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분석 실시
 - 화폐적 빈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 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며, 한국의 경우 은퇴 이후 화폐적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승
 - 물질적 곤궁은 20~40대 청년기와 은퇴 이후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화폐적 빈곤과 다소 상이한 양태를 보였고, 이는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빈곤 경험을 완화하는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

[그림 1] 화폐적 빈곤과 물질적 곤궁 경험의 생애주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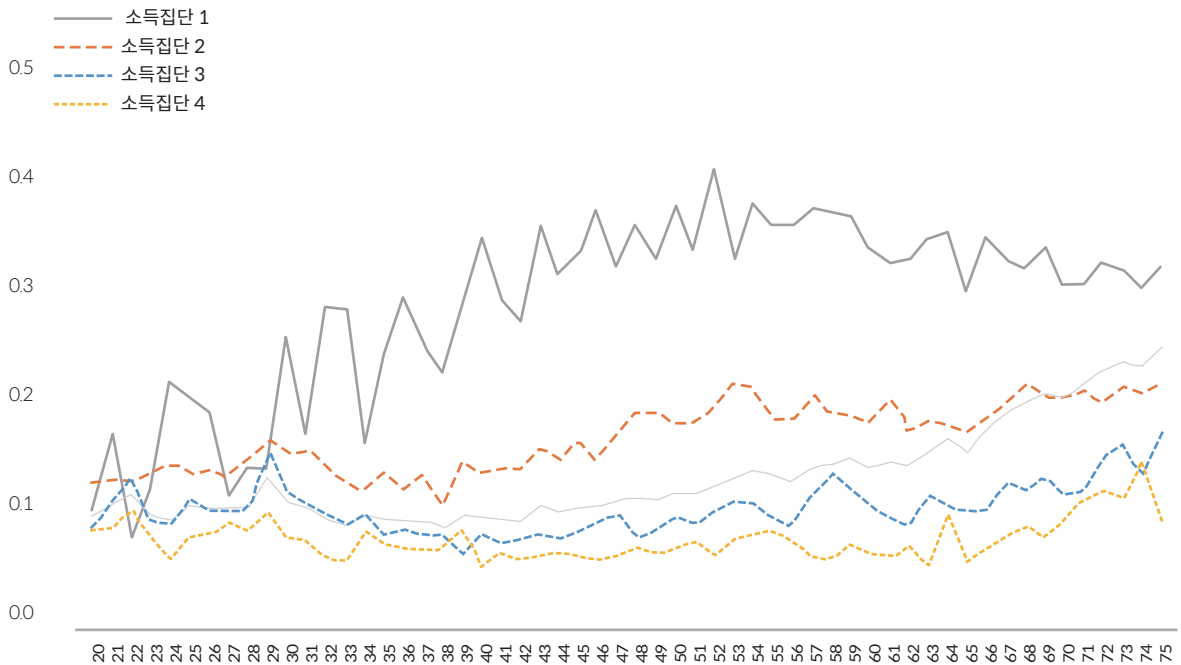
주: 1. 좌측은 연령에 따른 화폐적 빈곤의 확률을, 우측은 물질적 곤궁 경험의 확률을 각각 도식화한 자료
 2. 한국복지패널은 7차 연도인 2012년 1,800가구 신규패널을 추가하여 8차 연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이 변화하였는 바, 8차 연도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그래프 제시

II.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1. 정신건강(우울)

- 화폐적 빈곤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 수준별 연령에 따른 우울감 수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우울과 연령은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소득 집단별 격차는 비교적 일관된 경향
 - 전체 평균을 나타내는 엷은 색의 실선을 살펴보면, 20대 말에 우울감이 높아지고 50대에 이르러 우울감이 다시 한번 높아진 뒤 점증하는 양상
 - 20대 초반을 제외하고 생애 기간 전반에 걸쳐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의 우울감이 높음
 - 20대 초반에 집단 간 차이가 분명하게 포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시기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지 않고, 후기 청소년 시기의 특성에 의해 소득 수준이 심리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

[그림 2] 소득 수준과 정신건강 수준의 생애주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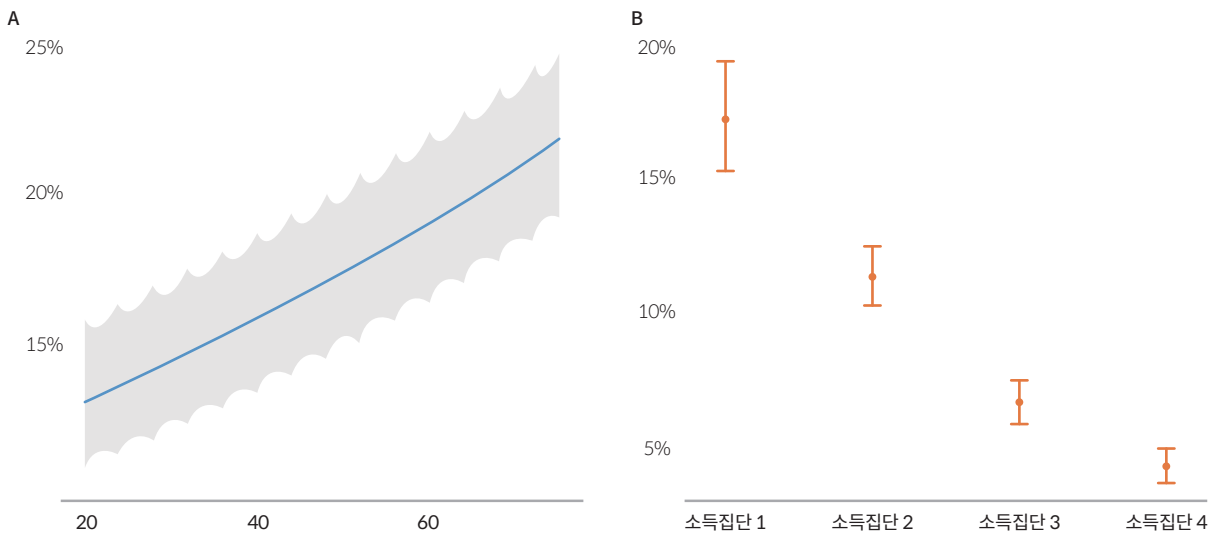


주: 소득집단 1은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집단 2는 중위소득 50% 이상 100% 미만, 소득집단 3은 중위소득 100% 이상 150%미만, 소득집단 4는 중위소득 150% 이상에 해당

□ 소득 수준과 연령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연령의 증가 및 소득의 감소에 따라 우울감을 느끼는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에 포함된 연령 범위(20~75세)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비교하면, 두 연령 사이에 약 10%p의 확률 차이 포착
- 소득 집단별 우울감 수준은 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소득 하위 집단과 소득 상위 집단 간에는 평균 약 14.5%p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
 -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층에 속하는 소득집단 1의 경우 평균적으로 17.5%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위소득으로부터 1.5배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이는 소득집단 4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3% 수준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소득 수준의 AME(DV: 우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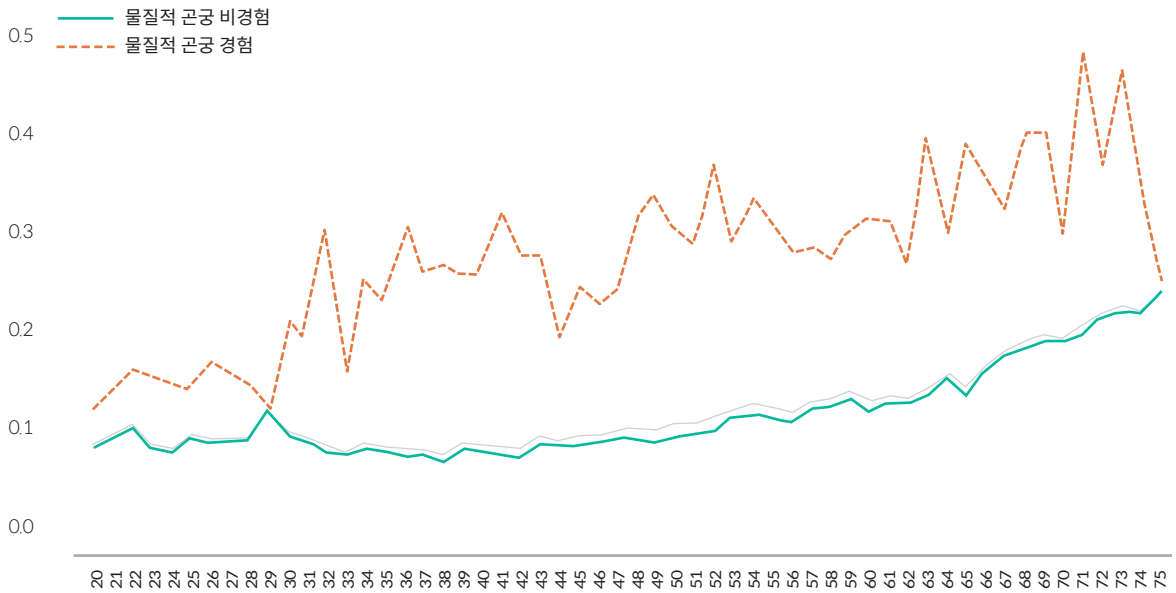


주: 1. 좌측(A)은 연령에 따른 우울감 경험의 확률 변화를 추정한 것으로, 중앙의 실선은 평균 수준을 상하의 음영 부분은 95% CI(confidence interval)를 의미
 2. 우측(B)은 소득 집단별 확률을 오차막대(error bar)의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오차막대의 중점은 집단의 평균을 상하 범위는 95% CI(confidence interval)를 의미

□ 물질적 곤궁을 경험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우울감에서 차이를 보임

- 물질적 곤궁을 경험하는 노년층의 경우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
 - 노년기에 접어든 집단 가운데서 물질적 곤궁을 경험하는 경우 최대 50% 수준에 가까운 높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물질적 곤궁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최대치에 가까운 20%의 2.5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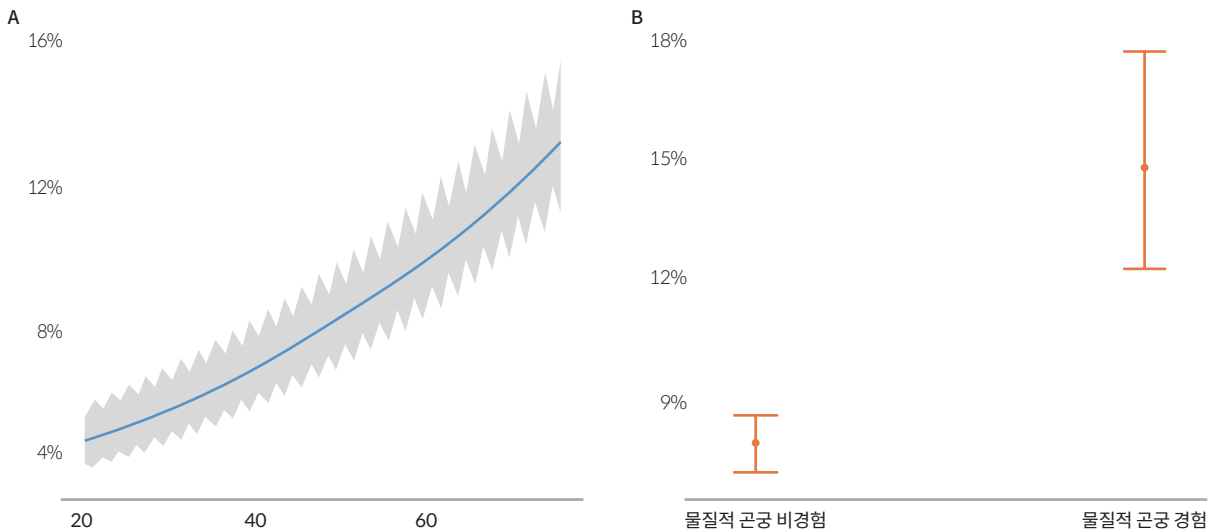
[그림 4] 물질적 곤궁과 정신건강 수준의 생애주기별 분포



□ 높은 수준의 우울감 경험(우울감 상위 20%)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연령과 물질적 곤궁 경험의 AME를 추정한 결과, 소득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연령에 따라 **우상향하는 경향 관찰**

- 물질적 곤궁에 따른 우울감은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 물질적 곤궁을 경험하는 집단은 평균적으로 약 15%의 높은 우울감을 경험하며, 이는 물질적 곤궁을 경험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우울 경험 확률이 약 7.5% 높은 수준

[그림 5] 물질적 곤궁의 AME(DV: 우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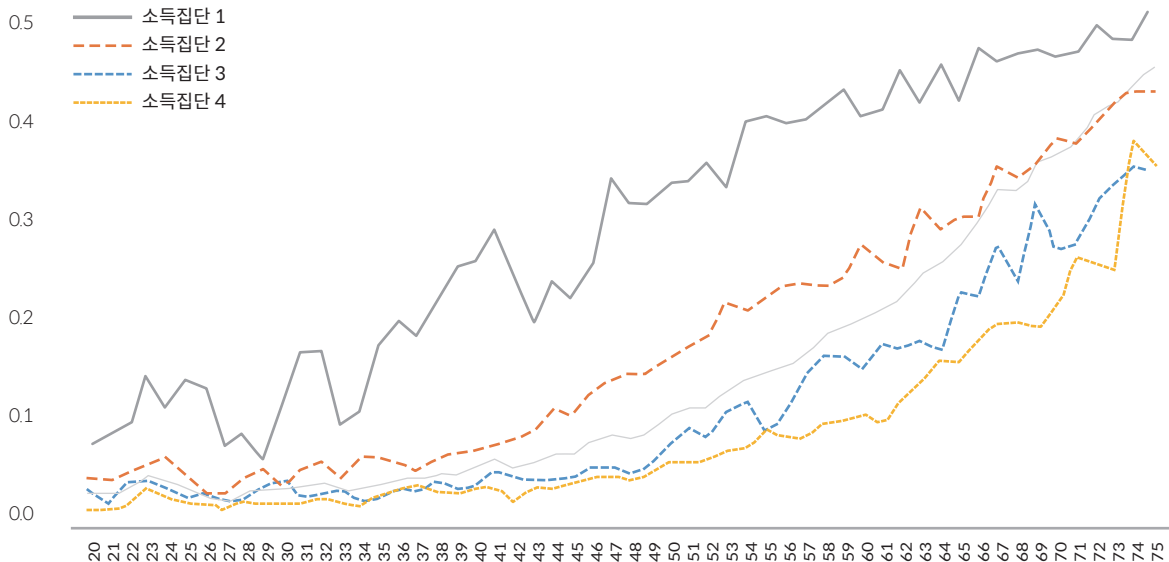
주: 1. 좌측(A)은 연령에 따른 우울감 경험의 확률 변화를 추정한 것으로, 중앙의 실선은 평균 수준을 상하의 음영 부분은 95% CI(confidence interval)를 의미
 2. 우측(B)은 물질적 곤궁 경험 여부를 오차막대(error bar)의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오차막대의 중점은 집단의 평균을 상하 범위는 95% CI(confidence interval)를 의미

2. 신체건강

□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인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은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집단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동일한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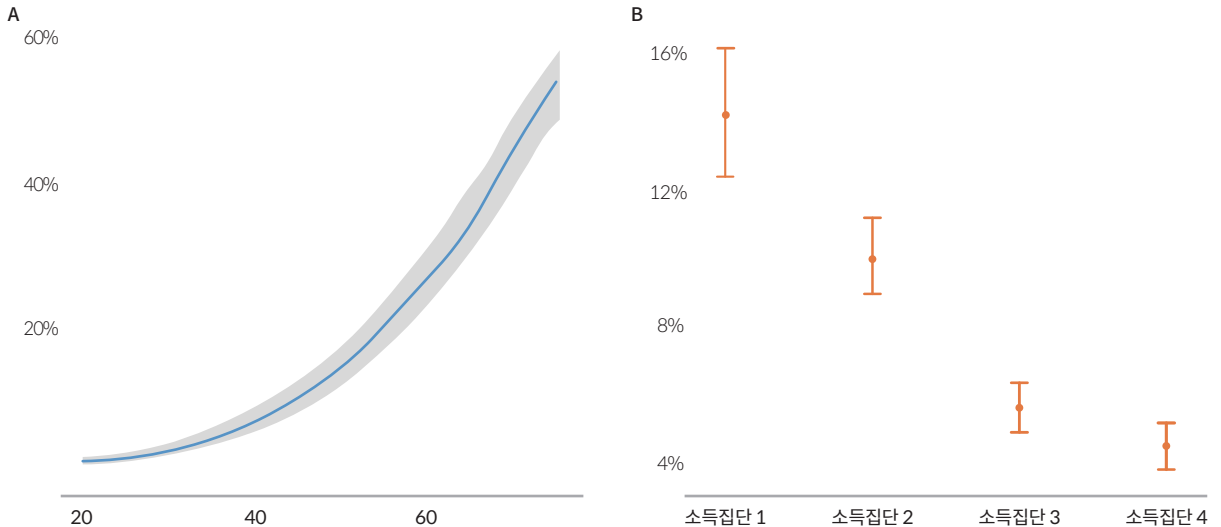
-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을 의미하는 옅은 실선을 기준으로 저소득 집단일수록 주관적 신체건강 수준이 좋지 않으며, 고소득 집단일수록 주관적 신체건강 수준이 나쁜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구간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젊은 연령대의 주관적 신체건강 수준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남
 - 빈곤집단인 소득집단 1은 30대부터 지속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비율이 증가하며, 소득 수준이 중위값보다 낮은 소득집단 2는 40대 이후부터, 소득 수준이 중위값보다 높은 소득집단 3과 소득집단 4는 50대 이후에 신체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을 확인
 -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해 본인의 건강관리에 투자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

[그림 6] 소득 수준과 신체건강 수준의 생애주기별 분포



- 주관적 신체건강 악화를 결과 변수로 지정하고 소득 수준과 연령을 고려하여 AME를 추정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신체건강이 악화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
 - 20세는 신체건강이 나쁜 비율이 약 2%이지만, 40세에는 8%, 60세에는 27%, 80세에는 54%로, 40세를 기점으로 주관적 신체건강 악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수준에 따라 주관적 신체건강 악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빈곤집단(소득집단 1)은 평균 약 14%, 저소득층(소득집단 2)은 약 10%, 중위값의 1.5배 수준의 집단(소득집단 4)은 평균 약 5.5%, 고소득층은 약 4.5%인 것으로 나타남
 - 중위값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두 그룹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그 외의 그룹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

[그림 7] 소득 수준의 AME(DV: 신체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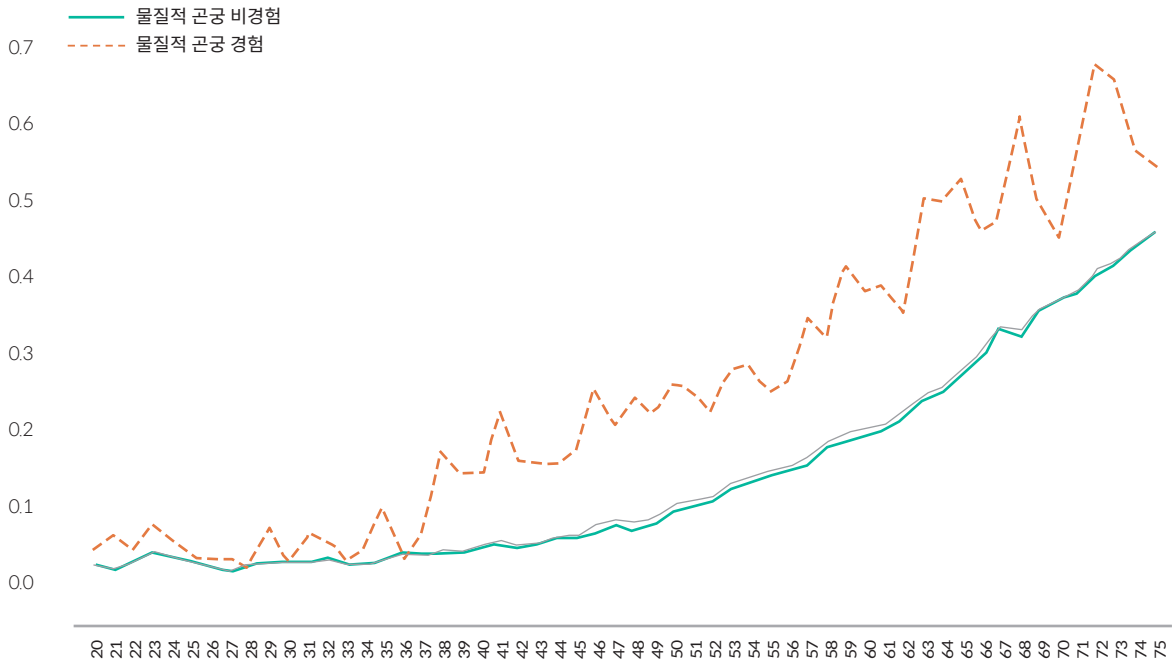
주: 1. 좌측(A)은 연령에 따른 신체건강의 확률 변화를 추정한 것으로, 중앙의 실선은 평균 수준을 상하의 음영 부분은 95% CI(confidence interval)를 의미
 2. 우측(B)은 소득 집단별 확률을 오차막대(error bar)의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오차막대의 중점은 집단의 평균을 상하 범위는 95% CI(confidence interval)를 의미

- 물질적 곤궁 경험과 주관적 신체건강 수준의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물질적 곤궁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한 두 집단 모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신체건강 수준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체건강 수준이 양호한 연령대인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는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30대 중반 이후로는 두 집단 간의 신체건강 수준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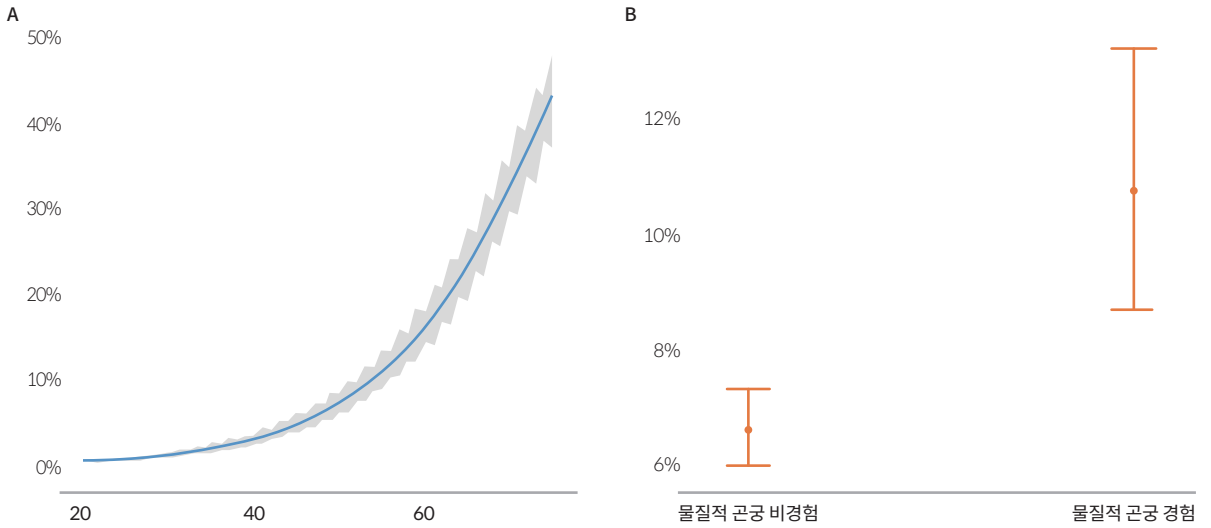
- 물질적 곤궁 경험이 있는 집단은 70대를 전후하여 60%가량이 건강 수준이 나빠지는 것에 비해 동일한 연령대에 물질적 곤궁 경험이 없는 집단은 약 40-4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
 - 빈곤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노후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

[그림 8] 물질적 곤궁과 신체건강 수준의 생애주기별 분포



- **연령과 물질적 곤궁 경험의 AME 검토 결과, 물질적 곤궁 경험을 고려했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건강이 좋지 않은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 빈곤 경험이 있는 고령인구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과 함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집단은 평균적으로 11% 가량이 신체적 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하는 반면, 물질적 곤궁 경험이 없는 집단은 약 6.5%만이 그와 같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빈곤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약 4.5%p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물질적 곤궁의 AME(DV: 신체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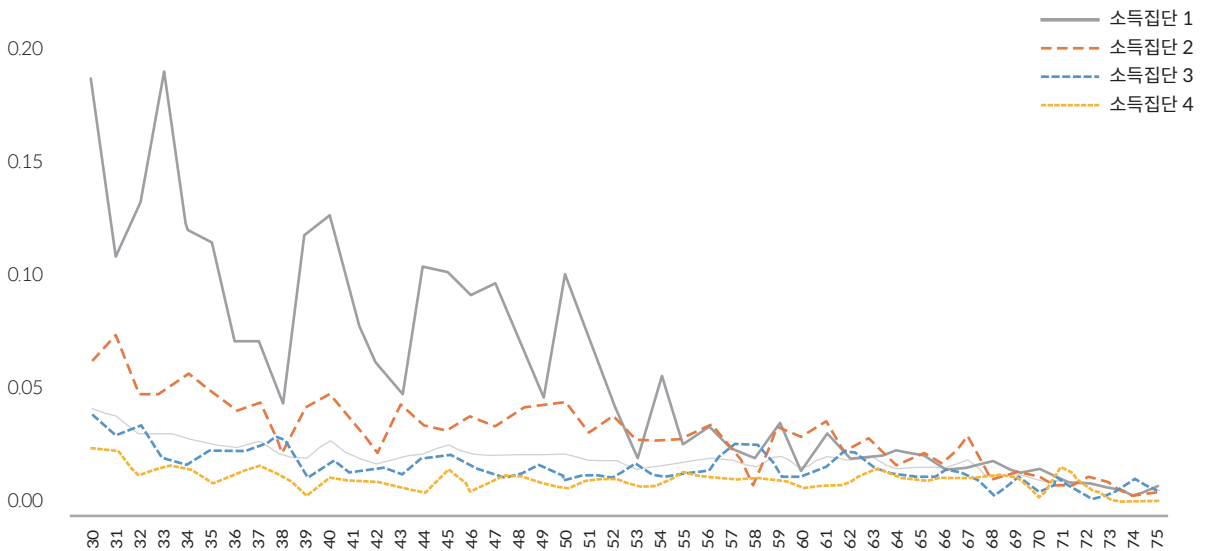


주: 1. 좌측(A)은 연령에 따른 신체건강의 확률 변화를 추정한 것으로, 중앙의 실선은 평균 수준을 상하의 음영 부분은 95% CI(confidence interval)를 의미
 2. 우측(B)은 물질적 곤궁 경험 여부를 오차막대(error bar)의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오차막대의 중점은 집단의 평균을 상하 범위는 95% CI(confidence interval)를 의미

3. 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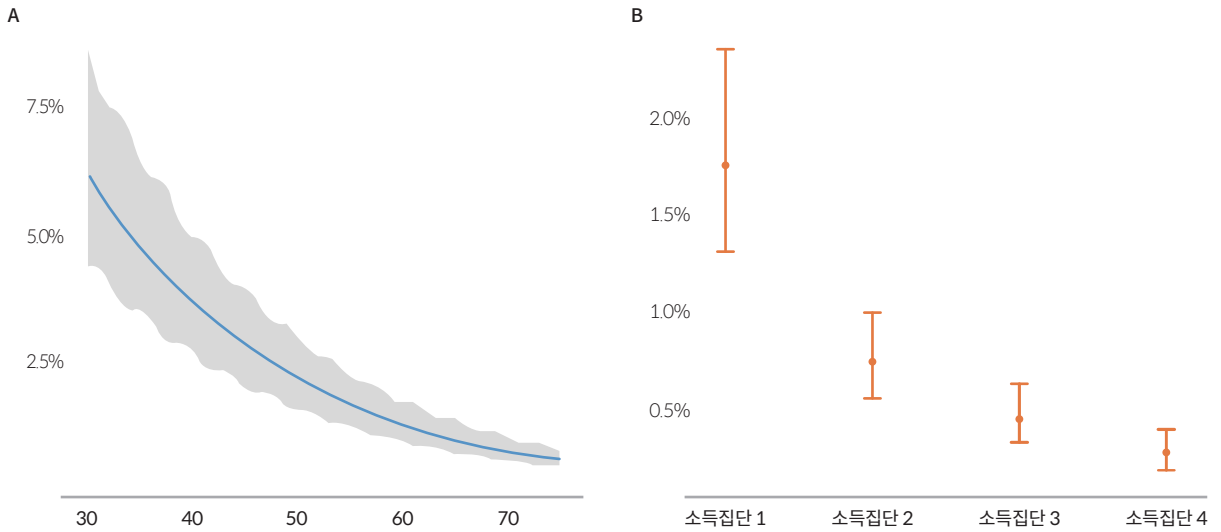
- 소득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소득집단 1: 빈곤 - 소득집단 4: 고소득) 각 집단의 실업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빈곤집단일수록 실업의 위험에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집단 2~4의 경우 연령에 따른 경향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빈곤층(소득집단 1)의 실업 비율은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0세에서 50세까지는 그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
 - 반면 은퇴 연령인 60대 이후에는 실업 비율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감소

[그림 10] 소득 수준과 실업 수준의 생애주기별 분포



- 실업을 결과변수로 설정하고 연령과 실업 비율의 AME를 추정한 결과, 실업 비율을 고려한 소득 수준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우하향
 - 빈곤층(소득집단 1)은 평균 1.75% 수준으로 실업 비율이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그 외의 집단의 경우 소득집단 2는 0.75%, 소득집단 3은 0.4%, 소득집단 4는 0.25% 수준으로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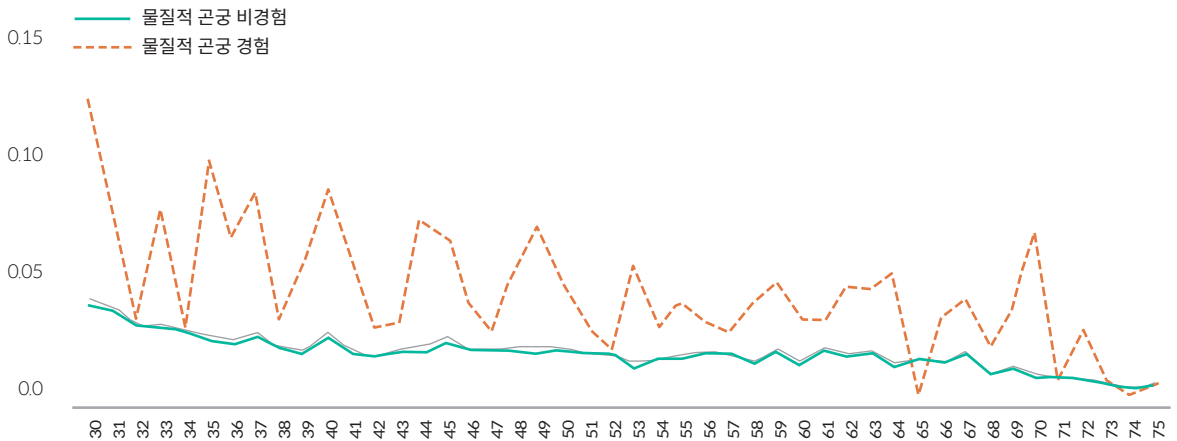
[그림 11] 소득 수준의 AME(DV: 실업)



주: 1. 좌측(A)은 연령에 따른 실업 경험의 확률 변화를 추정한 것으로, 중앙의 실선은 평균 수준을 상하의 음영 부분은 95% CI(confidence interval)를 의미
 2. 우측(B)은 소득 집단별 확률을 오차막대(error bar)의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오차막대의 중점은 집단의 평균을 상하 범위는 95% CI(confidence interval)를 의미

- 물질적 곤궁 경험과 실업 수준의 값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실업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전체 연령대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실업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실업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실질적인 빈곤의 수준이 심화하였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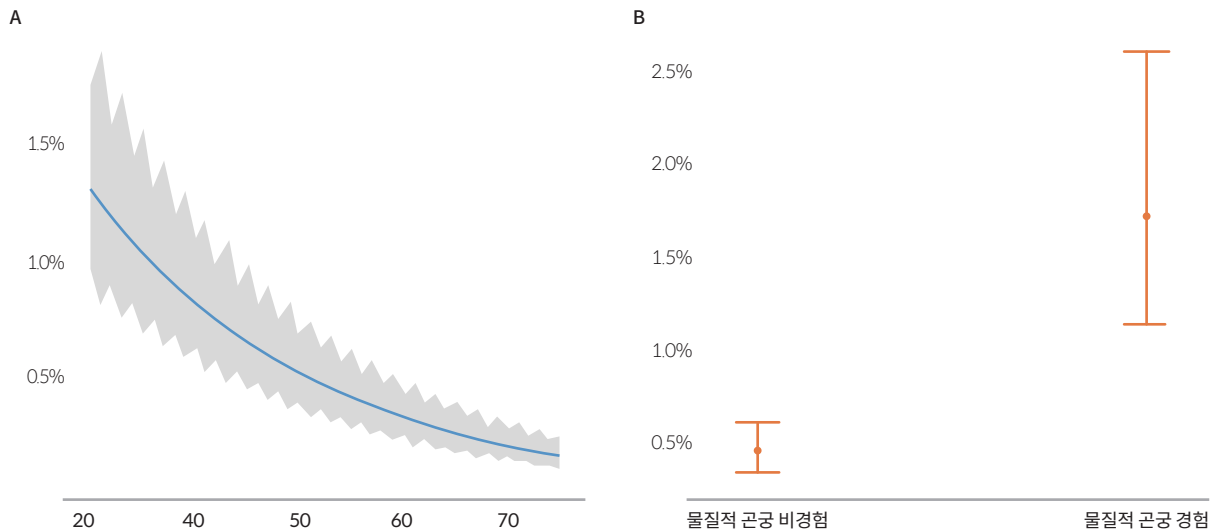
[그림 12] 물질적 곤궁과 실업 수준의 생애주기별 분포



□ 실업을 결과 변수로 연령과 물질적 곤궁 경험의 AME를 추정한 결과, 물질적 곤궁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실업 수준이 약 0.5%였으나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집단은 평균 1.75% 수준으로 나타남

- 물질적 곤궁 경험에 따른 실업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
- 연령이 높을수록 물질적 곤궁 경험을 고려한 실업 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

[그림 13] 물질적 곤궁의 AME(DV: 실업)



주: 1. 좌측(A)은 연령에 따른 실업 경험의 확률 변화를 추정한 것으로, 중앙의 실선은 평균 수준을 상하의 음영 부분은 95% CI(confidence interval)를 의미
 2. 우측(B)은 물질적 곤궁 경험 여부를 오차막대(error bar)의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오차막대의 중점은 집단의 평균을 상하 범위는 95% CI(confidence interval)를 의미

III. 시사점

□ **사회적 위험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비교적 강한 선형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비선형적 구조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음
 - 비선형적 구조의 경우 일정한 상승, 하강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특정 연령에서 위험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개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고찰이 필요
-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분포와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생애집단에 대한 정책의 목표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개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 **빈곤은 다양한 생애주기별 위험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적 빈곤 경험을 의미하는 물질적 곤궁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부터 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
 - 이는 빈곤을 매개로 다양한 개인적 위험들이 질병에서의 동반질환(comorbidity)과 같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
- 다양한 위험을 동시에 경험하는 개인에게 정책적으로 개입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직접적으로 빈곤 경험을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
 - 공공부조제도와 같은 현금급여를 통해 화폐적 빈곤 수준을 완화하는 방식 이외에도 교육, 의료, 주거 서비스 등의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통합적으로 요구
- 빈곤 경험이 촉발하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위기는 연쇄적 발생을 통해 개인의 삶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기가 중첩·연쇄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취약 집단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 발생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관점과 빈곤 경험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정책 설계 필요

□ **정신건강(우울)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독립하지 못한 20대 초반까지를 제외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며, 단순한 소득 빈곤이 아닌 물질적 곤궁의 경우에는 노년층은 거의 절반 가까운 비율로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금급여 지원을 통한 소득 빈곤 완화만큼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물질적 곤궁 해소가 빈곤문제 해소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 작동하게 됨을 의미

- **신체건강의 경우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신체건강 수준이 좋지 않으며,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건강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빈곤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하여 실업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실업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실업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빈곤 수준이 심화하고 있어, 근로소득의 감소를 완화해줄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 시사
- **빈곤문제가 정신건강, 신체건강, 실업의 위험과 중첩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된 현금급여 지급 정책이 해소하지 못하는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존재
 - 현금과 서비스의 적절한 조합에 근거한 정책 구성과 해당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선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

참고문헌

- 김진영(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연령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3), pp. 127-153.
- 노법래·양경은(2020), 「한국복지패널로 들여다본 청년의 생애사: Multistate Model로 그린 한국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의 경로와 소득 집단별 비교」, 『사회복지연구』, 51(3), pp. 71-94.
- 박선희·최영화(2020), 「중장년 남성 고독사 고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8, pp. 45-78.
- 신근화(2013), 「독거노인의 사회적 배제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9, pp. 647-676.
- 안종순(2015),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질성과 사회적 위험대응의 계층 간 차이」, 『사회복지정책』, 42(1), pp. 2-26.
- 이미숙(2005), 「한국 성인의 건강불평등: 사회계층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6), pp. 183-209.
- 이상록·백학영(2008), 「한국사회 빈곤구조의 지역 편차 분석: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4), pp. 205-230.
- 이상은·정찬미·김희찬(2019), 「한국의 위험분포와 사회보장 지지도 -실업 발생가능성을 통해 본 미래소득상실 위험의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6(3), pp. 203-227.
- 이성림(2015),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구성과 소비 격차」, 『한국인구학』, 38(2), pp. 85-111.
- 이원진(2011), 「개인화 (individualization) 인가 계층화(stratification) 인가? 생애사건과 사회계층이 빈곤진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5(5), pp. 25-60.
- 이진희(2016), 「지역적 건강불평등과 개인 및 지역수준의 건강결정요인」, 『보건사회연구』, 36(2), pp. 345-384.
- 최재성·김혜진(2019), 「노인의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 분석: 다중적 배제의 잠재집단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3, pp. 193-224.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거버넌스 그룹장)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정영훈(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12.24.
1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삶의질 그룹장)	2021.1.7.
1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
12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2.18.
13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3.4.
14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3.18.
15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4.1.
16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4.15.
17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4.29.
18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5.13.
19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5.27.
2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1.6.10.
21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2021.6.24.
22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거버넌스 그룹장) 외	2021.7.8.
23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1.7.22.
24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8.5.
25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삶의 질 그룹장)	2021.8.19.
26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9.3.
27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9.16.
28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거버넌스 그룹장)	2021.10.7.
29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0.21.
30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1.4.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31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11.18.
32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9.
33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6.
34	인구총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2021.12.23.
35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30.
36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1.10.
37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1.24.
38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삶의질데이터센터장)	2022.2.7.
39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2.2.21.
40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	2022.3.7.
4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2.3.21.
42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4.4.
43	기후변화 5대 영향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김은아(혁신성장그룹장)	2022.4.18.
44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문지혜(거버넌스그룹 연구행정원) 황희정(혁신성장그룹 연구행정원)	2022.5.2.
45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5.16.
46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5.30.
47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6.13.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